

인터넷보안회사 Symantec사, 특허침해소송에서 잇단 화해

퍼스널 컴퓨터용 보안 소프트웨어「Norton」으로도 알려진 인터넷보안회사 Symantec사는 보안기술을 둘러싼 특허침해소송에서 디지털 보안 회사 Aladdin Knowledge Systems사와 화해 이후, 디지털 통신의 보안관리용 소프트웨어회사 Clearswift사와도 화해

소 송의 쟁점은 특허 번호「5,319,776」기술의 사용에 관한 것이다. 동 특허는 바이러스 등의 유해 코드를 사용자가 다운로드 하기 전에 스캔하는 기술을 커버하고 있다.

Symantec사는 2003년 8월 별개 소송에서 화해의 일환으로, Hilgraeve사로부터 동 특허를 매입했으며 그에 수반해서, 동 특허를 둘러싸고 이미 제쟁 중이었던 이번의 Clearswift사와의 소송이

나, 일전 화해가 성립했던 Aladdin Knowledge Systems사와의 소송 등에서 원고의 지위를 인계 받았었다.

Clearswift사와 화해의 금전적 조건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화해의 일환으로서, Clearswift사는 Symantec사의 인정기술 파트너가 됨과 동시에 Symantec사의 특허 기술을 이용한 비배타적 라이선스를 취득했다.

마이크로프로세서 특허 전쟁, 일본 PC메이커로 부터 세계 IT대기업으로 확대

소니 등 PC메이커를 특허침해로 제소한 Patriot가, 마이크로프로세서 특허를 150사 이상의 IT기업에도 행사 의사를 밝히고 IT 대기업의 대부분에 경고장을 발송

미 국의 Patriot Scientific사는, 금년초 일본의 PC메이커 5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 관련해 추가로 150사 이상의 IT기업을 대상으로 할 예정임을 밝혔다.

동사는 지난 주, 동사가 보유하는 미국 특허 5,809,336호를 침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들 기업에 경고장을 송부했다.

발표문에서는 송부처의 회사명은 밝히지 않았지만, 큰 IT기업 대부분이 이 경고장을 받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다.

동사는, 반도체, 통신기기, 컴퓨터 하드웨어, 전자기기, 컴퓨터 주변기기, 과학기술기기, 컴퓨터 저장기기, 컴퓨터 네트워크, 오피스기기 분야의

영구자석의 발명보상금 소송

영구자석의 재료를 발명한 히타치금속의 전 주임연구원 이와다 마사오(58)가 발명의 대가로서 약 8,900만엔을 요구한 사건에서 도쿄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지지, 발명에 대한 공헌도에 대해 회사측 90%, 이와다측 10%로 인정하여, 보상금 1,260만엔을 지급하도록 판결

판결에 의하면 이와다씨는 1983년 발명에 성공. 이와다씨로부터 특허권을 승계한 히타치금속은 전기메이커 등과의 라이선스 계약으로 합계 약 1억 3700만엔의 이익을 얻었다.

회사측은 「특허권 양도의 시점에서 장래의 이익을 예측하여 투자 리스크를 공제해 산정하면 상당 대가는 약 60만엔」이라고 주장했지만, 山下和明 재판장은 「회사측 주장의 계산방법은 특허에 의한 실적을 기본으로 매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사내규정에 반하며 회사가 얻은 이익을 토대로 발명자의 공헌도를 고려해 산정해야 한다」라고 기각했다.

또한 회사의 공헌도를 90%로 한 1심의 판단은 타당하다며 이와다씨에게 약 1,130만엔을 지급하도록 도쿄지방법원 판결을 지지. 또 1심 후에 동사가 얻은 이익의 약 1할에 해당하는 130만엔을 추가 지불하도록 명령하여 이와다씨에 대한 보상액 합계는 약 1,260만엔이 되었다.

세계 대부분 대기업에 연락을 했다고 한다.

Patriot가 승소할 경우, 반도체 메이커와 컴퓨터 판매상에 성가신 사태가 될 것이다. 종업원 10명의 Patriot는, “110-120 MHz 이상의 스피드로 작동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는, 동사의 특허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특허가 인가된 이래 1500억 달러 이상에 상당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가 동사의 기술을 사용해 만들어졌다고 동사는 추측하고 있다.

동사는 2004년 2월, 일본의 소니, 후지쯔, 토시바, NEC, 마쓰시타전기 5개사를 상대로 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최초의 소송에서는, 수억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Patriot는, Intel사가 예방적 법적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동사도 제소했으며 Intel사를 필두로 각사는 Patriot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지재 전문 법률 사무소 Bromberg and Sunstein의 공동 창설자 Bruce Sustain은, “증거조사 개시로 정보가 분명하게 되면 선행 기술이 밝혀진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화해의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그렇지만 Patriot가 20만~30만 달러 등의 낮은 금액으로 화해한다고 하지 않으면, 화해에 이르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제공 지식재산권 연구센터

발특2004/6